

## 자연적 가족계획의 윤리와 인간가치

번역 / 맹 광 호 (가톨릭의대 교수)

다음 글은 금년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세계보건기구가 태국수도 방콕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의 —“가족계획의 윤리와 인간가치: 개인과 사회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국제대화”—에 부친 교황성하의 연설문 가운데 일부분, ‘자연적 가족계획의 윤리와 인간가치’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방콕회의를 위한 교황성하의 연설문은 오늘날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갖가지 가족계획에 관하여 그들의 윤리문제와 인간가치문제를 제기하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올바른 인구 및 가족계획관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 소개하는 부분은 교회가 단지 세계적 인구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윤리적이고 인간가치를 높이는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각국이 이를 보다 널리 보급하고 관심있는 의료인, 과학자들이 이를 좀 더 연구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가족계획 방법이란 다음 3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1) 남여의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2) 각기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가치를 존중하며, (3) 인구증가상태 뿐 아니라 인구감소 상태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이같은 윤리적 원칙과 그간의 보급상황을 근거로 볼때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이야말로 진정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와 자금지원 또한 이 방법에 치중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가족계획을 일단 윤리나 인간가치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문제와 결부시켜 볼때 자연가족계획만이 진정 인간적인 가족계획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몇가지 단계로 더욱 잘 설명이 되는 일로서 이는 기타 피임약제나 기구들의 윤리문제를 다시한번 강조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 가. 자연가족계획은 과학적으로 이미 그 효과가 증명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자연가족계획방법은 주로 3가지 즉, (1) 점액관찰법(빌링스법)과 (2) 증상체온법, 그리고 (3) 모유수유(breast feeding) 방법이 있습니다.

점액관찰법이나, 체온측정을 가미한 증상체온법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는 그동안 호주 멜번 대학의 「제임스 브라운」교수와 스웨덴 올메아 대학의 「에릭 오데블라드」교수 등이 그 높은 과학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 결과를 내고 있고 완전 모유수유를 통한 출산조절에 관해서는 호주모나쉬대학의 「로저쇼트」교수, 그리고 미국의 「뉘 맥슨」박사 등의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두 방법의 높은 피임효과에 관해서 계속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들은 적어도 경구피임약 만큼의 피임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은 일차적이건 이차적이건 전혀 유산축진효과가 없습니다.

이 방법들은 무엇보다 윤리적으로 모든 인종, 모든 문화, 그리고 모든 종교적 배경에도 잘 수용이 되는 것으로서 다른 유산축진 피임제제들이 갖는 도덕문제나, 건강문제를 전혀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 자연적 가족계획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방법들은 우선 남녀의 건강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체상 건강권을 해치지 않으며 방법사용상 충분한 정보를 얻는 권리도 향유할 수 있게 합니다.

라.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은 임신을 피하게도 하지만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겐 임신을 성취 시키기도 합니다.

이 방법들은 원리상 여성주기 가운데 배란을 알아내는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임신을 피하고 터울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을 받지만 임신력이 낮은 부부들에게 임신을 도와주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들은 인구과잉으로 고민하는 나라 모두에서 부부들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유용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은 모체나 아이에게 아무런 건강적 피해를 주지 않음으로써 영아 사망율을 줄여줍니다.

이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 어머니들은 위생이나 영양, 그리고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임신을 하더라도 태아의 발육상태가 왕성하고 출산후 건강도 매우 좋은 상태가 되기때문에 다른 피임제제들의 경우와 같은 의학적 부작용도 경험하지 않게되며 따라서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영아 사망 또한 줄어듭니다.

1988년 사순절 강론을 통해서 교황 요한바오로2세께서는 오늘날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아들의 아까운 죽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신바도 있습니다.

바. 자연가족계획 방법은 여성의 권위를 높혀 줍니다.

자연적 가족계획방법들은 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부부가 함께 여성의 생식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항상 여자의 생식 능력이 존중되는 상태임을 뜻하며 스스로 임신능력을 상실한 불임상태로 떨어지게 하는일이 없게 함으로써 여성된 권위를 높여주게 됩니다.

사.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은 결혼과 가정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자연가족 계획 방법이 갖는 이런 인격적인면 때문에도 이 방법들은 개인과 사회에 이익을 주며 무엇보다 부부는 서로가 생명제공자(life givers)로서 서로 대화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의 생식능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생활을 더욱 활력있게 해주게 됩니다.

아. 자연가족계획 방법은 누구나 쉽게 배울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들 방법의 실전은 기본적으로 여성 스스로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배란증상을 느끼고 관찰하는 일이므로 학력이 낮은 사람이거나 심지어는 장님까지도 이 방법을 쉽게 익힐수가 있으며 또 남에게 이를 쉽게 가르칠수도 있는 것입니다. 점차 이 방법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의 효과적인 교육지도 방법에 관한 새로운 전략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은 사용자에게 전혀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자연가족계획 방법에 드는 가장 큰 비용은 단지 이를 보급하고 사용자들을 관리하며 계속 연구하는데 드는 인적 자원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달리 돈이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현재로서는 대부분 국가들에서 이 방법을 보급하는 사람들 모두가 교회사업의 하나로 이 일에 봉사하는 상태에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자연가족계획에 관한 이상 여러가지 장점들을 고찰해 볼때 가장 두드러진점이 바로 이것이 다른 피임 방법들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기타 피임방법들이 개인이나 사회의 많은 문제를 단기적이며 응급조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인데 반해 자연적 방법들은 좀더 긴시간에 걸쳐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

인간가치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가족계획이 크게 실패하고 있음은 아직도 자연가족계획 방법이 가족계획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1) 세계보건기구 인간생리연구개발 및 훈련특별프로그램의 예산가운데 대부분이 인공적인 피임제나 기구개발과 연구에 쓰이고 있으며 자연가족계획이나 불임연구에는 매우 적은 액수만이 할당되고 있는 사실이 그 한가지 예입니다.

(2) 세계보건기구가 1986년 8월 26~29일 폴란드 「와르샤」에서 개최한 소위 「비종교적차원에서 자연가족계획방법 보급을 위한 국가간 지도자 워크샵」도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자연가족계획의 가치를 깨어내린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령 이들의 워크샵결과 보고서에서 자연가족계획을 “가임기인지방법 (Fertility Awareness Method)”이라고 다시 정의함으로써 자연가족계획의 일부 기능적인면만을 보면서 본래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은점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연가족계획을 배란 증상에다가 콘돔같은 몇가지 방어적 피임법을 가미하여 쓰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비종교적’이란 말이 결국은 ‘비윤리적’이란 뜻으로 해석이 될만큼 이 모임의 결론은 모든 가족계획이 지녀야할 윤리와 인간가치 문제를 가볍게 보고 개인과 사회현실을 지극히 물리적으로만 생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의 결론이 비 윤리적 접근에 의한 것이라는 단적인 예는 자연가족계획방법의 주된 내용인 주기적 금욕을 비 자연적이라고 정의한 점이다. 이같은 좁은

견해는 아마도 60년대와 70년대의 소위 성혁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것은 각기 다른 문화권의 많은 나라 부부들이 그동안 주기적 금욕 생활을 통해 무엇보다 그들의 결혼생활이 더욱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서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3) 자연가족계획 방법의 온전성과 이것을 가르치며 사용할 수 있는 남녀의 일반적 권리가 여러가지로 침해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컨대, 일반 가족계획사업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연가족계획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른 가족계획방법도 소개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부로 이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와르샤」 워크샵에서는 자연가족계획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임시기동안 물리적 방어방법이나 성기자극에 의한 수음행위등을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주기적금욕의 긍정적인면을 크게 손상시키고 나아가 자연적 방법의 온전성을 해치는 내용을 결론으로 다루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연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이같은 차등인식은 때때로 이 방법을 비과학적인 주기법(Rhythm method) 정도로 표현하기도 하며 또는 이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이 ‘종교적’인 방법이며 사용이 매우 어려운 방법이라고 선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의 최대 지원자인 우리 교회는 이 세계 모든나라 남녀가 정당하고 공평하게 이 방법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 방법에 대해 알게 모르게 가해지는 차별대우가 종식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자연적 가족계획은 전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어머니와 아이 모두에게 베푸는 전인적의료차원에서 보더라도 가장 적합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누구나 쉽게배워 쓸 수 있는 가장 값싸고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여성의 인격적 존엄성을 높이고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히 해주며 모든 문화배경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 증진시켜 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 결 론

오늘날 각종 피임방법의 기술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것은 바로 사려깊지 못하고 거칠기까지한 피임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윤리상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 피임제국주의적 사고방식 뒤에는 이들 소위 효과적 피임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심외에도 자기와 다른 사회에서의 종교가 갖는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또한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물질만능주의와 향락주의자,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보면 종교란 삶의 극히 한 개별적 영역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선택해도 그만 선택하지 않아도 그만인 전혀 별개의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종교가| 일상|생활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성적으로 성숙한 남녀가 되는 일이라든지 가족간의 유대, 또는 인간 생명 그 자체의 가치 등 여러가지 소중한 인간가치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사회들에서는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만능주의와 향락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적 인생관은 자칫 윤리를 종교로부터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제3세계에서 이런 분리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그 사회와 문화에 일대 참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피임제일주의적 사고방식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가)어떤 피임방법이 기술적으로 효과가 있다고해서 반드시 개인이나 사회에도 이익이 되고 효과를 발휘한다든지, (나)적은수의 인구에서 보다 좋은 경제상태가 이룩된다든지 하는 차라리 단순하고 순진스런 견해들에 대해 이를 거부하기를 요청합니다.

교회는 여성들이 유산촉진제를 피임제로 사용하기를 원치않고, 남성들이 장차 태어나게 될지도 모를 그들의 아이들이 유산되는 것을 원치않고 또 불임수술이 남녀의 성스런 생식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일체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는 전통사회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교회는 자연가족계획 방법이야말로 자녀터울 조절을 위한 가장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가족계획방법으로 인정 받게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